

체리부로식품 벤처기업 공식인정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본회 회원사인 (주)체리부로식품(대표 김인식)이 벤처기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의해 공식 인정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체리부로식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결과 높은점수를 받아 1차 심사만으로 벤처기업으로 공식 인정받는 쾌거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체리부로는 지난 91년 창업이래 매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결과 지난해 도계 및 판매부문에서 업계 3위까지 고속 성장을 해온 것은 물론 육가공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는 받는 등 사업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리부로식품은 신상품 출시는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게장을 비롯 2개의 도계장을 인수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주)하림, 치킨너겟 등 육가공제품 일본에 대량 수출 - 일본시장의 오랜 평가결과 6종 선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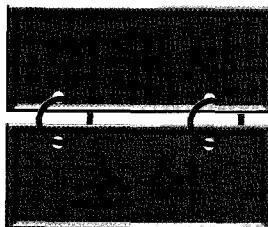
(주)하림(대표 김홍국)의 육가공제품이 일본시장에 대량으로 수출된다.

7월말 선적을 완료하는 것으로 오더를 받은 육가공제품은 치킨너겟, 치킨스틱, 바비큐치킨, 치킨볼, 치킨버거 등 총 6종류로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우선 니카 다(NIGATA)현을 중심으로 14개 대형 매장

에서 판매되며, 이어서 일본 전국으로 판매망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다.

(주)하림은 그동안 삼계탕 한 품목만이 정기적인 대일수출을 해왔으며 부정기적으로 냉동육 수출을 해왔으나 금년 봄에 하얀속살 비엔나 소시지의 대일 수출이 이루어져 일본 시장의 대호평을 받은 끝에 이번 추가로 6종류의 육가공제품 오더를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가격 또한 국내대리점 가격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부가이익도 크게 발생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내 육계산업의 수출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육가공제품의 대일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주)하림은 2001년도 매출목표에 있어서도 4,200억원을 크게 넘을 것으로 전망하며 경상이익 또한 목표액 1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국산 닭고기로 만든 한입 크기의 “닭불갈비” 출시

- 신선한 양념에 2번 재운 전통적인 불갈비맛
- 도시락 반찬에 적합한 쫄깃하고 고소한 맛
- 무발색제, 무방부제의 순수한 닭불갈비

(주)하림(대표 김홍국)은 최근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닭불갈비’를 출시하였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닭불갈비는 하림이 자체농장에서 직접 키운 100% 건강한 국산 닭고기 다릿살을 주원료로 7가지 생야채로 만든 신선한 양념에 2번 재워 깊고 진한 맛을 그대로 살아 있는 전통적인 불갈비맛이다.



제품 크기도 한입에 쏙 들어갈 만하게 적당하여 갈비를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데 상추나 깻잎 등 각종 야채에 싸먹으면 그 맛이 한결 뛰어나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불에 직접 구워 그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워 도시락 반찬이나 술인주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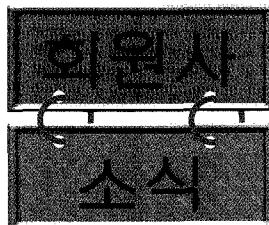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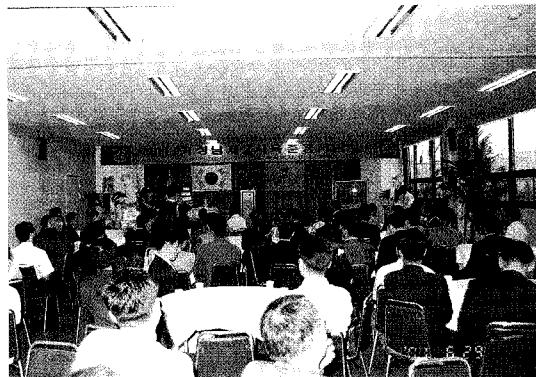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방부제와 발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인체에 무해한 완전한 건강식품임은 물론 안전한 식품이다.

'닭불갈비'는 구제역과 광우병 등으로 인해 닭고기의 수요가 급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550억 매출 규모가 예상되는 적전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되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닭불갈비'는 하림의 대표상품인 용가리치킨, 치킨너겟과 함께 트로이카의 위용을 갖춰 하림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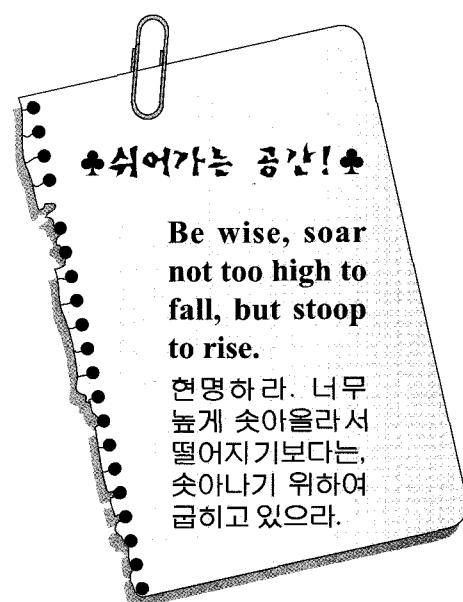
'닭불갈비'의 소비자가격은 300g에 3,100원, 720g에 7,000원.

마니커 성남제2사옥 준공식 가져 지난달 29일



(주)마니커(대표 한형석)은 지난 달 29일 11시 내외커빈을 비롯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마니커 성남 제 2사옥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6에 위치한 (주)마니커 제2사옥에는 (주)마니커 판매 1, 2본부를 비롯 (주)대연농산 등이 입주해있다.



협회 소식

한국계육협회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가



본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관에서 개최된 2001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했다.

양계홍보관 닭고기 전시코너에 참가한 본회는 닭고기 가공제품을 위주로 전시에 참가했으며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요리카드 및 월간 닭고기 책자를 배부, 큰 호응이 있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주)하림, (주)마니커, (주)화인코리아, (주)한일농원 등 4개 회원사가 참가했다.

참가 회원사들은 신제품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등 자사 브랜드 및 이미지 홍보에 적극 나섰다.

본회, 임원 조찬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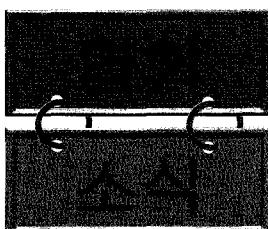


본회는 지난 3일 7시 30분 서울 팔레스호텔 다봉에서 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조찬간담회는 계육업계의 현안문제를 위한 폭넓은 의견개진을 위한 것이다.

2001 - 제1차 이사회 개최 육계사육농가 회원영입 적극 나서기로

본회는 지난 11일 2000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 정관개정에 따른 회원 및 회비규정 등을 심의했다.



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이사회에서 임원들은 정관개정으로 정회원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육계사육농가 협회 가입과 관련 사육규모가 5만수 이상이며 입회비 50만원 이상에 연 20만원을 회비를 징수키로 결정했다.



또한 (주)한강CM과의 도계장 합병으로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일시 탈퇴했던 (주)한일농원도 정관개정에 따라 도계장이 없이도 정회원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사회에서 가입신청을 승인, 통합경영분과위 소속 회원사로 복귀됐다. 아울러 가금처리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한라(제주가금처리장)도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통합경영분과위로 소속을 바꿨다. C

6월 닭고기 퀴즈잔치 당첨자 추첨



본회는 지난 11일 6월 닭고기 퀴즈잔치 당첨자 추첨을 실시했다.

6월 닭고기 퀴즈 잔치의 정답은 1.콜라겐, 2.아미노산, 3.리놀레산으로 총 1천 206명이 응모했으며 이중 정답자 1천29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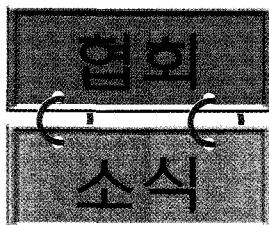
이번 6월 닭고기 퀴즈잔치 당첨자 추첨은 본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소속 회원사 대표들이 참여했다.

축산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본회 김홍국 회장은 지난 11일 축산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김회장은 닭고기 생산자 단체로서의 한국계육협회의 위상정립등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또한 김회장은 국내 닭고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계육협회가 자조금 사업 시행 단체로 반드시 지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본회 신규가입 정회원 및 준회원 명단◀

정회원(통합경영 분과위)

(주)한일농원 차상협 031) 235-9911 031) 236-3419
--

한라(제주육 계조합) 고성현 064) 755-3212 064) 723-6662
--

준회원

유)하림유통 이창민 유통 061) 722-2025 061) 724-3633	(주)브라더유통 안재운 유통 02) 771-1477 02) 771-1479	안성사료(주) 김일수 단미사료 032) 361-8541 032) 361-8542	인포아트커뮤니케이션 기자회 제조 02) 2269-5029 02) 2269-5026
하림유통 이철승 유통 063) 832-9989	도서출판 필방 윤봉중 출판 02) 871-9561	하림전주대리점 이정우 유통 063) 285-5450 063) 232-5450 063) 231-5450	(주)키토랑 조영래 도계 053) 555-5111 053) 557-5112